

美 국회 공청회, 마싼자 고문 및 성폭력에 초점

[밍후이왕](밍후이 기자 리징페이 미국 워싱턴 DC 보도)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CECC)는 2016년 4월 14일 오후, 국회 의사당에서 ‘중국의 광범위한 고문 사용(China’s Pervasive Use of Torture)’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중국 랴오닝성에서 미국으로 탈출해간 파룬궁수련생 인리핑(尹麗萍)은 증인으로 참가해 본인이 랴오닝성 마싼자 노동교양소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고 촬영까지 당하는 등 공포적인 경력을 서술했다. 그녀는 중국에서 7번 붙잡혔는데 여섯 차례 박해받아 사경에 이르러 집에 들러갔고, 세 차례 노동교양을 받으면서 9개월 동안 노역 박해를 받았다. 마싼자 노동교양소에서 그녀는 정체불명의 약물 주사를 맞았고 질식할 정도로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도 받아 거의 생명을 잃을 뻔했다.

인리핑은 공청회에서 고문 박해 사진 여러 장 보여주었다. 그녀는 본인이 직접 본 주위 사람들이 고문 받은 사실과 박해 받아 사망한 경위를 말할 때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박해 받은 파룬궁수련생)서로 살아서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인성이라고 전혀 없는 이런 박해를 전 세계에 알리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구사일생으로 여기에 와 그녀들이 다시는 말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인리핑은 당일 공청회에서 미국 국회에 그녀를 박해한 일부 주요 책임자 명단을 제출했다. CECC는 이 명단을 미국 국무부에도 전달했다. 이 명단에는 장쩌민, 보시라이, 왕리쥔(王立軍), 원스전(閻士震)과 마싼자 및 기타 지방에서 박해에 참여한 교도관 등 41명이 있었다.

인리핑은 말했다. “2000년 9월 중순, 랴오닝성 마싼자 노동교양소 소장 수징(苏境)은 대회에서 ‘이는 한 차례 연기가 없는 전쟁이다. 국가에

■ 미국 국회의원에
게 랴오닝성 마싼자
노동교양소 사진을
보여주는 인리핑



서 파룬궁을 위해 쓴 경비비 한차례 국제전쟁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는 위의 명령이라고 강조하면서 파룬궁을 100% 전화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단 성폭행을 당하다

인리핑은 말했다. “2001년 4월 19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아침 저와 다른 8명 파룬궁수련생은 마싼자에서 비밀리에 아주 특수한 곳으로 압송돼 갔습니다. 전문적으로 남자들이 여성 파룬궁수련생을 성폭행하는 흑감옥이었습니다. 우리 아홉 명은 각기 9개 방에 들어보내졌습니다. 저를 첫 번째 방에 밀어 넣었는데 방안에는 큰 2인용 침대 하나와 목제 옷장이 있었고 남자 네 명이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10시 경, 복도에서 갑자기 찌우구이룽(鄒桂榮)의 비참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리핑, 리핑, 마싼자는 우리를 늑대 굴에서 또 호랑이 굴로 보냈어. 이 정부는 강패 짓을 해!’ 그녀는 끊임없이 이 두 마디를 외쳤습니다. 그녀의 비참한 비명을 듣고 저는 죽기내기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찌우구이룽도 기를 쓰고 복도로 나왔습

니다. 저는 찌우구이룽을 꼭 잡고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지키던 남자 죄수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때렸습니다. 제 오른쪽 눈 주위는 맞아서 볼록 튀어나왔고 옷은 모두 찢어져 떨어져 바지는 발등에 걸려 있었고 옷은 목 아래로 흘러 내려 있어 흘랑 다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저와 찌우구이룽은 모두 각자 방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들 남자 죄수 4, 5명은 저를 침대에 던지고 팔을 누르고 다리를 눌렀고 그 중 한 30여세 남자가 제 몸을 타고 앉아 제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렸습니다. 제 기억은 계속 맞고 있다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제가 깨어나 보니 제 옆에는 이미 세 남자가 누워 있었고 그들에게 집단 성폭행 당할 때 촬영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는 제가 살아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들을 고소할 것이고 제가 그곳에서 죽으면 제 영혼은 절대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의 소행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10명이 박해 받아 사망하다
인리핑은 증언할 때 말했다. “이번 박해에서 지금까지 제가 아는 파룬궁수련생 10명이 박해 받아 사망했습니다. 제가 알고 (뒷면에 계속)

성 610 요원의 '텐안먼 분신자살조작사건' 현장 목격담

[밍후이왕] 2016년 4월 3일, 한 대륙 파룬궁수련생은 밍후이왕에 편지를 보내 그들 현지의 한 성 소속 610 사무실(장쩌민이 1999년 6월 10일 성립한 전문적인 파룬궁 박해 조직)의 주요 두목이 폭로한 '텐안먼 분신자살' 거짓 조작 사건을 친히 목격한 정황을 알렸다.

이 성 소속 '610 사무실'의 주요 책임자(중국 현재 상황을 고려해, 당사자 성명을 밝히지 않음)는 당시의 목격담을 말했다. 2001년 1월 그 당시 '담당 성 소재지의 파룬궁(法輪功)수련생 몇 명이 베이징으로 상방을 갈 예정인데, 목적지는 대부분 텐안먼광장이다.'라는 첩보를 관내 공안국으로부터 받게 됐다. 당시 그의 임무는 베이징 상방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며칠간 날마다 오전 오후 두 차례씩 텐안먼광장으로 가야 했다.

2001년 1월 23일 오후에도 역시 상방하는 파룬궁수련생을 막기 위해 걸어서 텐안먼 광장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서야 알게 됐는데 광장은 기실 이미 경계가 삼엄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특별히 엄했다. 길에서 여러 사복경찰과 제복을 입은 계엄인원들에게 세 차례나 '특수신분증명서'를 제시한 후에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기를 평소에 제시하던 그 '일반통행증'은 그날에는 모두 소용이 없었고 그는 또 610의 특수신분증(성급 이상 610 요원에게만 발급된 특수임무신분증)을 제시하고 나서야 통과할 수 있었다고 했다.

광장에 도착한 후 시간이 좀 지나 광장을 정돈하기 시작했는데 그 역시 또 특별증명서를 보여주고 나서야 광장에 남을 수 있었다. 당시 광장에 남은 사람은 아주 적었다. 그때 그는 광장에 몇 대의 영화촬영기(이건 그의 표현임. 정확히는 사건조작 전문촬영기라고 해야 함)가 설치돼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중요한 정치활동을 촬영하거나 무슨 영화촬영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했다.

그는 멀리서 누가 "불이야, 불이야!"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외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가면서 보니 먼 거리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

아 올랐고, 광장에 있던(대기 중이던) 사람들이 불이 난 곳으로 달려가고, 사람들이 불을 끄는 것을 보았다. 당시 그가 서 있던 위치는 그 분신자살사건의 현장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에 구체상황은 분명히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조금 전 걸어들 때 그 불이 난 바로 그 현장에서 미리 촬영기를 세워놓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아마 영화를 촬영하는 것이려니'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므로 달려가서 구경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당일 광장의 경계가 삼엄했으므로 누구도 광장으로 진입할 수 없으므로 그 길로 그는 호텔로 돌아왔다.



(앞면의 계속) 있는 마싼자에서 박해 받아 정신이상이가 되거나 한 때 정신이상이가 된 파룬궁수련생은 30명입니다.

인리핑은 2015년 7월 6일 중국공산당 최고검찰원에 고소장을 발송해 장쩌민을 사법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美 의원들, 파룬궁수련생의 박해 폭로 용기 높이 평가

공청회에 참석한 미국 국회의원들은 박해를 폭로한 파룬궁수련생의 용기를 칭찬하고 감사를 표하면서 파룬궁 박해 원흉 장쩌민 및 그의 추종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회 헌법과 민사사법소조 위원회 대표이며 연방 하원의원인 트레نت 프랭크(Rep. Trent Franks)는 공청회에서 증인으로 나선 사람에게 가장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여러분의 노력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만이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서 증언한 성과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책임을 담당했습니다." ◇

그는 성에 불일이 있어 비행기를 타고 성으로 돌아갔는데, 그날 저녁 텔레비전방송보도를 보고서야 자신이 '텐안먼 분신자살사건'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중공 체제 내 당국자들이 직접 겪은 경력으로부터 볼 때 '텐안먼 분신자살사건'은 조작되고 날조된 속임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공의 장쩌민 집단이 의도적으로 감독 연출한 것이다. 그것들은 그 조작사건으로 파룬궁에 죄를 뒤집어 씌웠다. 10여 년 동안 중국의 중 소학교, 대학에서 모두 '텐안먼 분신자살사건'을 반드시 배워야 할 교재로 만들어 파룬궁을 모함하는 표준답안으로 삼아 많은 소년 아동과 청년 학생들을 거짓에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다. ◇

중앙 TV의 '분신' 화면에서 화염에 싸였던 왕진동의 다리 사이에 있는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음료수 병은 청록색이 새 병과 같고, 가장 불에 타기 쉬운 머리카락도 완전하다. 경찰은 옆에서 진화용 담요를 들고 기다리다 왕진동이 구호를 모두 외친 후에야 담요를 씌웠다. 도대체 이것은 분신인가 아니면 연극인가?



연변박해소식

◆ 지린성 엔지시 파룬궁수련생 평구이잉은 납치되다

6월 3일 오후, 지린성 엔지시 파룬궁수련생 평구이잉(冯桂英)은 진학파출소에 납치됐다.

◆ 지린성 훈춘 파룬궁수련생 리시렌은 감옥에서 위급한 상황이다

리시렌(李喜莲)은 2015년 12월 19일에 납치되어 2016년 1월 15일에 불법으로 3년 반의 형을 받고 엔지시 구치소에 감금됐었는데 그 기간 그의 신체는 매우 허약했고 기침을 아주 심하게 했다. 2016년 4월초에 지린성 여자 감옥으로 이송되어 계속 박해 받고 있다. 현재 그는 폐결핵 진단을 받았고, 65kg이던 체중이 40~45kg이 되었다. 너무 여위어서 원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가족은 전했다. 감옥 측은 석방을 거절하면서 능히 치료할 수 있다고 했다.